

국민 화가로 칭송을 받았던  
『티치아노』



박 회 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화가에게 성공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는 것으로 뛰어난 독창성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티치아노는 일찍이 사회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국민 화가로 칭송을 받았다.

티치아노의 전성기의 작품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다. 미술사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여인의 누드를 사실적으로 그린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에 이 작품은 침대에 누워 있는 여인의 모습에 전형이 되었고 당대에 베네치아 화가들뿐만 아니라 앵그르와 마네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처음 기대어 누워 있는 누드를 주제로 제작한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와 모티브는 같지만 티치아노는 조르조네의 목가적인 작품을 가정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모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며 그는 여성의 나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신화에서 주제를 빌려왔다. 당시 여자의 누드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에로티즘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작되지는 않고 신혼 방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비너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들은 16세기에 아주 흔한 소재 중에 하나로서 원래는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그림으로 귀족들이 자신들의 신혼 방이나 침실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심지어는 다산을 상징하기 위해 화가들에게 의뢰했다.

비너스는 침대에 누워 화려한 보석 팔찌를 두르고 장미꽃 다발을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는 음부를 가리고 앞을 바라보고 있다.

커튼 뒤로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기둥이 있는 창문은 우르비노의 궁전을 묘사한 것으로 이 작품이 어디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창문에 난간에 있는 둥근 은매화 나무는 결혼의 영원한 애정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 여인이 들고 있는 장미꽃은 비너스의 상징물로서 이 작품의 제목을 상징한다.

개는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이 작품에서 비너스 발 밑에 개를 그려 넣은 것은 부부가 서로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부 침실을 장식하고 있는 작품에서 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창가의 두 사람의 하녀가 옷궤에서 옷을 꺼내고 있다. 결혼식의 함으로서 신부의 옷이 들어 있는 옷궤에는 그 당시 보통 남녀의 누드가 그려져 있었다.

티치아노는 색채와 구도를 강조해 동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추구하던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나 로마의 미술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유럽 전체에 명성을 얻는다.



<우르비노의 비너스>-1538년, 캔버스에 유채, 119\*165,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티치아노의 대표작 <전원 음악회>는 젊은 남자가 사랑의 연가를 목동들에게 들려주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티치아노는 16세기 초에 발표한 사나자로의 시 <아르카디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지만 시를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았고 악기를 루트로 바꾸고 주인공도 시인으로 표현했다.

화면 오른쪽에 목동과 양들이 보이고 붉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는 루트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목동은 몸을 기울여 연주를 듣고 있다. 젊은 남자와 목동 앞에 벌거벗은 채 앉아 있는 여인은 플루트를 들고 있으며 화면 왼쪽의 여자는 물을 따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벌거벗은 여인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녀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 플루트를 들고 있는 여자는 미를 상징하고 있으며 젊은 남자가 꿈꾸는 사랑을 암시한다. 물병을 들고 있는 여자는 절제를 상징한다. 물과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물병은 오래전부터 절제의 상징이었다.

이 작품에서 남자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남자와 여자의 대비를 통해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표현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1490~1576년경>은 다양한 주제를 유화뿐만 아니라 벽화, 패넬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표현했다. 고대 신화, 역사화, 초상화 등에서 그는 르네상스 미술의 사회적 문학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전원의 음악회>-1510년경, 캔버스에 유채, 110\*138,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